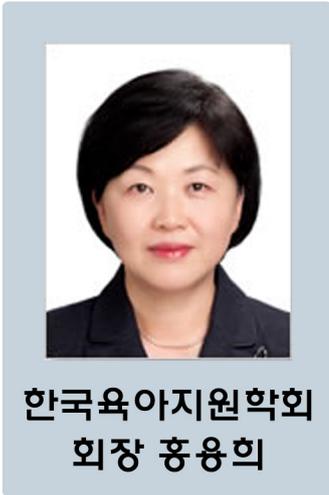


인사의 말씀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장 홍용희

안녕하십니까?

e-뉴스레터를 통해 오랜만에 회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속적 폭염, 열대야에 지내기 힘들었으나, 한편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4년 동안 힘써 닦은 기량을 발휘하며 선전하는 모습에 감탄하면서 무더위를 잊기도 했던 올 여름이었습니다. 혹 태풍 ‘볼라벤’ 때문에 피해를 입지는 않으셨는지요. 이제 9월을 맞이하여 회원님들께서는 배움터에서, 일터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며 많이 분주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하계 연구소모임 45차 『대체 이론으로서 미하일 박틴(Mikhail Bakhtin)의 이론과 유아교육』과 46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그리고 춘계학술대회 『공감에 기초한 유아인성교육의 과제 및 방향』에 참여하셨던 모든 회원님들께 늦었지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춘계학술대회와 하계 연구소모임을 성황리에 마친 뒤 이어 추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계신 집행부 위원님들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유아들로 하여금 전인발달을 이루고 인성과 창의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려는 것이 본 학회의 설립 목표인 바, 연간 2회에 걸쳐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영·유아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협하는 사회적 현상이나 요인들을 찾아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와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봄에는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에 대한 예방책으로 ‘공감에 기초한 유아인성교육의 과제 및 방향’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가을에는 유아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테크놀로지 중독 문제와 교육 테크놀로지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테크놀로지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간의 성격이 파괴되고, 행복과 복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예: 휴대폰-스마트폰, 인터넷, PC게임, TV 등) 중독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 사회 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2012년 봄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중독이 가장 심각한 연령대가 만 5세라는 충격적 보도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것은 마약을 직접 먹이는 것과 같다.’고 전문가는 말하더군요. 어린이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 테크놀로지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현명한지에 대한 각성과 반성적 실천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에 10월 26일에 개최될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유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 테크놀로지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을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현대사회의 테크놀로지 유해 환경과 유아들의 생활을 살펴보고, 유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교육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활용 할 수 있는지 고찰할 것 입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유아들의 바른 인성을 강화하고 학습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테크놀로지의 활용에 대한 생산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원님들께 본 학회 홈페이지를 9월 1일로 새로 구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는 몇 달 동안 회원님들께 많은 불편을 드려 죄송했습니다. 아직 메인 화면과 각 메뉴의 디자인은 수정 중에 있으나, 세부적인 메뉴들은 재조정 되어 사용하기에 더 편리해졌사오니 자주 방문하고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학회자료실에 탑재된 자료들(육아지원연구, 학술대회, 연구소모임)이 회원님들의 연구와 학업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학회 홈페이지를 제작하느라 헌신하신 온필원 연구원(University of Missouri at Columbia)을 위시한 김난실 홍보부 이사님, 이현옥 감사님, 조미형 홍보부 간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2년에 회원님들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시기를,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그리고 내년 1월에 개최될 동계 연구소모임에도 많이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육아지원학회장 홍 용 희

1. '5세 누리과정'의 제정 및 '3, 4세 누리과정'의 확대 도입

정부는 취학전 만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만5세 공통과정(5세 누리과정)¹⁾'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11.5.2)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새로운 '5세 누리과정'을 고시('12.9.5)하였다. 이에 금년 3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만 5세 유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 다니든지 공통의 '5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5세 누리과정'은 만 3~5를 위한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중 만 5세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을 선별, 수정·보완하여 마련한 것으로, '5세 누리과정' 전반에 걸쳐 기본생활습관 및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유아 주도적인 경험과 놀이중심의 통합과정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1일 운영시간은 3~5시간을 기준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12년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 3월부터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한다는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12.1.18)하였다.²⁾ 이에 따라 현재 만 3-4세 유아에 대하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며, 지원단가와 연도별 인상금액은 만 5세아와 동일하다. 만 5세 누리과정에 이어 3, 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 도입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 단계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2. '3-5세 누리과정³⁾의 특성

2013년 3월부터 3, 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5세 누리과정'과 연계한 '3, 4세 누리과정'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육아정책연구소는 금년 3월부터 「3, 4세 누리과정 제정 TF」를 구성·운영하였다. 본 TF는 육아정책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담당관,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학계, 교원, 전문직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었다. 「3, 4세 누리과정 제정 TF」에서 마련한 3, 4세 누리과정 1차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12.6.11),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3-5세 누리과정을 동시에 고시하였다('12.7.10).

1) 「만 5세 공통과정」은 명칭공모를 통하여 2011년 7월 14일 「5세 누리과정」으로 공표됨. 「5세 누리과정」은 만 5세아에게 제공되는 '무상교육·보육 제도'인 동시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공통과정'의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됨. 이하 만 5세 공통과정을 「5세 누리과정」으로 통칭함. '누리'라는 말은 '세상'을 뜻하는 순 한글말로써 '국가가 제공하는 양질의 공통과정 서비스를 통해 만 5세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며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지님.

2)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합동보도자료(2012. 1. 18). 내년 만 3, 4세아도 누리과정(공통과정) 도입 및 0-2세아에 대한 양육수당 대폭 확대의 불임자료(관계부처 합동, 「3, 4세 누리과정」 도입 확대).

3) 2012년 7월 9일에 고시된 3-5세 누리과정은 3, 4세 누리과정 제정 및 5세 누리과정 일부 개정의 의미를 지니며, 이로써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3-5세 누리과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론 내용을 강화하였다.

5세 누리과정 총론에서 제시했던 기본·구성 방향, 목적, 목표 외에 편성·운영, 교수·학습 방법, 평가 부분을 총론에 포함시켜 국가수준의 공통과정의 형식을 갖추었다.

둘째, 5세 누리과정의 구성방향과 내용체계를 유지하였다.

3, 4세 유아의 발달에 기초하고, 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되, 기존의 유치원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또한 '5세 누리과정'의 기본 구성 방향과 구성틀을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과 내용 범주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단, 전체적인 체계와 맥락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부분의 내용의 명칭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하였으며, 5세와 3, 4세간의 차별성 및 난이도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통합하였다.

셋째, 목표는 영역별로 통합 제시하고, 내용은 연령별로 구성하였다.

3-5세 누리과정은 5개 영역별로 3, 4, 5세를 통합한 동일 목표로 제시하고, 내용은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하였다. 단, 3-5세 유아의 발달 특성상 연령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3-5세 연령에서 공히 다루어야 할 내용은 3-4세, 4-5세, 3-5세를 동일하게 제시한 경우도 있다.

넷째,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5세 누리과정'에 이어 3, 4세 누리과정 제정에서도 기본생활습관과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건강한 몸을 기르도록 신체운동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국가·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녹색성장교육, 인터넷·미디어 중독예방교육 등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가족 유형과 문화, 국제화 등 다원화된 사회에서 미래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도록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며 나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존중하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초등학교교육과정 및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3-5세 누리과정'은 '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5세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3세는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이상과 같은 특성을 지니는 3-5세 누리과정의 영역별 내용범주, 내용 및 세부내용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표 1> '3-5세 누리과정'의 영역별 내용범주와 내용 및 세부 내용 개수

구분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총계
내용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 인식하기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 갖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 	20
내용	3세	14	10	11	10	56
	4세	14	11	12	10	59
	5세	14	11	12	10	59
세부 내용	3세	31	17	20	17	103
	4세	32	25	28	20	129
	5세	33	25	29	20	137

4. '3-5세 누리과정'⁴⁾의 향후 추진 과제

누리과정 정책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관계 기관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요구된다. 3-5세 누리과정 정책의 성공적 실행 및 확대 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0~5세 취학전 교육·보육내용의 체계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만 2.5세 또는 3세부터 초등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보육 과정 틀(framework)을 갖추는 경향이다.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국가들은 0세부터 초등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나의 단일 교육과정 틀을 구축하고 있다. 이후 유아교육과 보육간의 보다 발전적인 연계·협력을 통하여 0-2세 표준보육과정 → 3-5세 누리과정 →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연계되는 교육·보육 내용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 유네스코는 국제표준교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의 “ISCED level 0” (0세~취학전 교육)에 ① 0~2세 아동 교육적 발달(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ISCED 01) 과 ② 3세~초등취학전 교육(Pre-primary education: ISCED 02)를 명시함.⁵⁾

나. 양질의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 강화

양질의 교육·보육 과정의 제공이라는 누리과정의 기본 취지를 충실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적·물적 운영 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5세 누리과정' 담당 교사는 1, 2급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실 수용성을 감안하여 3급 보육교사도 일정 기간 누리과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양질의 공통과정을 제공할겠다는 정부의 누리과정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3급 교사 포함에 대한 유예기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실내외 시설 및 공간 구성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신체운동·건강 및 바깥놀이를 강조하고 있는 누리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서는 실내외 시설·설비 특히, 실외놀이터 보유나 실외 놀이가 가능한 공간 구성 여부에 대한 규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설비 및 환경구성에 대한 공통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3-5세 누리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위한 세부 편성·운영 지침 제시

'5세 누리과정'은 기본과정을 의미하며 오전의 3~5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 시간은 방과후 과정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종일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운영체계 내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과 중의 누리과정 적용 시간, 누리과정 영역별 편성 및 교육 시수 등에 있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기본 규정으로 제시해 주되,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성·운영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누리과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혼합 학급구성 기준과 운영 지침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혼합반 구성·운영 문제는 '5세 누리과정' 도입시기부터 중요하게 고려해 온 사항이기는 하나, 이제 3, 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3, 4, 5세 세 개 연령의 혼합반 운영에 대한 교사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혼합반 구성·운영 방식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누리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3-5세 누리과정' 운영(혼합반) 매뉴얼의 개발·보급이 시급하다.

4) 2012년 7월 9일에 고시된 3-5세 누리과정은 3, 4세 누리과정 제정 및 5세 누리과정 일부 개정의 의미를 지니며, 이로써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5) UNESCO(2011).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General Conference, 36th Session, Paris.

라. '3-5세 누리과정' 교사 연수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3-5세 누리과정' 정책의 성공 여부는 현장 교원들이 누리과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3월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5세 누리과정'을 담당할 교사 약 32,000여명을 대상으로 집중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3, 4세 누리과정 확대 도입에 따라 새롭게 고시된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 연수 또한 체계적으로 충실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교사 양성기관에서부터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직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침서, 지도서, 교수-학습 자료와 교재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유아정책연구소 및 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3-5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용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매우 기본적인 자료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후 교사용 자율장학 매뉴얼, 가정과의 연계 지도 자료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누리과정을 보다 충실하고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자료 지원이 필요하다.

마. '3-5세 누리과정' 운영의 질적 수준 관리 방안 모색

'5세 누리과정'의 질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평가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만 5세아 학급 구성 및 운영, 누리과정 계획 및 운영 시간, 환경구성, 담당교사의 전문성, 누리과정 운영 평가, 부모 만족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취학전 교육·보육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 체계 하에 있으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및 전달체계는 다르지만 '3-5세 누리과정' 운영 평가의 기준과 관점은 공통평가지표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3-5세 누리과정'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컨설팅 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유아교육·보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누리과정 컨설팅장학지원단'의 구성·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바. 유아교육·보육간 협력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활성화

누리과정의 도입 및 시행 과정에서 담당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정책 조율 하에 유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교수, 현장 교원 및 전문직 등이 함께 합심하여 국내 최초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내용상의 통합을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향후 '3-5세 누리과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간의 의견 차이 및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 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간의 통합된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즉, 누리과정 관련 전문가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실천적 협력 및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터하여 유아정책연구소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유아교육·보육계의 전문가는 물론 각계 오피니언 리더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누리과정 발전 포럼'을 지난 7월 26일 발족시킨 바 있다. 이 포럼은 누리과정 관련 전문가들이 전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최적의 전문화된 누리과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은 물론 관련 단체 및 학회간의 누리과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협력과 토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1. 학회 활동 보고

1) 학술대회 - 2012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12년 4월 20일(금) 13:30~20:00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 B동 B153호
- 주제 : **공감에 기초한 유아인성교육의 과제 및 방향**
- 후원 : 교문사 공동체 양서원 육아방송 창지사

[개 회 사]

홍용희(한국육아지원학회장,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기조강연]

행복 선행학습

최인철(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주제강연 I]

사회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본 내러티브와 인성교육

윤영돈(인천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주제강연 II]

유아 공감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적 접근

조경자(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은진(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이경미(아이코리아 새세대 유치원 원장)

[종합토론]

이원영(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Young Scholar Session]]

시 간	1분과(교육관 B동 251호) 사회 : 곽아정 (안양과학대 유아교육과 교수)	2분과(교육관 A동 202호) 사회 : 유명의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	3분과(교육관 B동 153호) 사회 : 임원신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16:50 ~ 17:10	그림책을 활용한 창의적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강보라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강사)	유아의 그림을 통해 본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놀이에 대한 이미지와 의미 조성연 (수원여대 아동보육과 교수)	교사와 유아가 지각하는 교사-유아 관계 및 관련변인 분석 천향숙 (위덕대 유아교육과 교수)
17:15 ~ 17:35	유치원 교사가 계획, 실행, 평가한 교육과정에 나타난 실천적 지식 분석 이성희 (우송대 유아교육과 교수)	A study of prekindergarten teachers' 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이재은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강사)	유치원 만 3세반 유아들의 친구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김정신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강사)

2) [육아지원연구] 발간

▷ 제 7권 1호 발간: 총 7편 논문

- 전래동요 속 자연물을 소재로 한 자연미술활동이 유아의 자연친화적 태도 및 미술표현능력에 미치는 효과
-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유아교육과정의 재방향 설정
- 유아의 놀이행동과 역량지각 및 사회적 수용감 간의 관계
- 이야기 만들기.극 연계활동이 유아의 안전지식 및 안전문제해결사고 능력에 미치는 효과
- 영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육아 경험 연구
- 영유아기 어머니들의 안전지식, 안전인식과 안전실천과의 관계 연구
-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특수보육시책 예산과 사업에 관한 연구

3) 2012 동계 연구소모임

<p>[제43차 연구소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2년 2월 1일 (수) 10:00 ~ 12:00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ECC B321호 ○ 주제 : 유아교육에서의 실행 연구법 ○ 발표 : 홍용희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 참석인원 : 총 68명 	<p>[제44차 연구소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2년 2월 7일 (화) 09:30 ~ 12:10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ECC B321호 ○ 주제 : 공감의 뿌리(ROE: Roots of Empathy) -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세상을 바꾼다. ○ 발표 : 조경자 교수 (호서대학교) ○ 참석인원 : 총 41명
---	--

4) 2012 하계 연구소모임

<p>[제45차 연구소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2년 6월 28일(목) 9:30~ 12:30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 B동 김애마홀 ○ 주제 : 대체 이론으로서 미하일 박틴 (Mikhail Bakhtin)의 이론과 유아교육 ○ 발표 : 이경화 교수 (University of Georgia), 박수경 교수 (원광대학교) ○ 참석인원 : 총 71명 	<p>[제46차 연구소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2년 7월 5일(목) 09:30 ~ 12:30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 B동 B151호 ○ 주제 :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 발표 : 김희진 교수(이화여대), 배지희 교수(성신여대), 윤종수 판사 강의 동영상 ○ 참석인원 : 총 50명
--	--

2. 회원동정

〈저서발간〉

- 김은영, 신현옥, 신화식, 정정옥(2012). 아동복지.(주)교문사
- 이윤경, 김수영, 김창복, 문미옥, 백은주, 신화식, 심성경, 양옥승, 이경민, 이연승, 이혜원, 조형숙, 홍혜경 (2012). 유치원교직실무. 교육과학사
- 이명희, 김지영, 이지연(2012). 장애 유아 통합프로그램의 실제 :이화여자대학교특수교육연구소 학술총서4. 학지사

〈해외출장〉

- 이현순 회원 : 산업체 현장연수 프로그램 (레지오에밀리아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 지원-계명문화대학
 - * 장소 - 미국 Virginia Tech,의 Human Development과의 부속기관인 [Child Development Center for Learning & Reserach]
 - * 기간 - 6개월간(2012. 9.1.~2013. 2.28)